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교회

인테리어: ISM건축

**사랑하는교회 프로젝트**는 문정동에 위치한 상가 지하 1층, 260여평의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고 디자인 한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지하 전체의 평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교회가 표방하는 목회방식과 교회 운영에 맞추어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주어진 공간을 2개의 커다란 예배공간과 소그룹 모임을 위해 작게 분할된 여러개의 부속실들, 그리고 그 공간들을 Serve하는 공간들로 구성했습니다.

대 예배공간은 200여명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기둥에 의한 시선 차단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홀 우측에 십자형으로 배치하여 많은 좌석과 막힘없는 시야를 확보하도록 했고, 중고등부를 위한 예배공간은 1주일에 하루만 예배기능으로 활용되기에 주중에는 바로 옆에 위치한 북카페와 다목적실, 그리고 로비와 연계하여 외부인들도 접근이 용이한 카페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카페공간을 로비까지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 했습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인 사랑하는 교회는 침례당이 강단 뒤쪽에 배치되어야 했기에 이 침례당과 십자가를 중첩시켜 회개와 구원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침례당 벽면은 유리로 처리하여 부활절 침례식 모습을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십자가는 밝은 LED조명을 사용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자 했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부드럽게 수

면 위에 떠 있으면서 흰색 벽면으로부터 은은하게 도드라지기를 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단 뒤쪽으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불필요한 선들을 정리하면서 작은 공간이지만 깊이감이 느껴지도록 의도했습니다. 자연 채광과 외기의 환기에 있어 불리한 지하층이기에 어둡고 협소한 느낌을 없애고자 고급적 유리를 많이 사용하여 공간의 투명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간의 커(layer)가 읽히도록 했고 라이팅 월 (lighting wall)과 광천장을 사용하여 실내를 최대한 밝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물천정의 테두리를 곡선으로 만들어 높은 천정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고, 그 안쪽으로 반복되어 배치된 조명은 공사팀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불빛이 고르게 퍼지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냉난방 설비 외에 별도의 공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한 공기를 지하층에 계속해서 유입하도록 했습니다.





부속 공간을 디자인 할 때는 개인 성경공부, 소그룹 모임, 식사 교체 공간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flexible space)이 되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식당을 둘 수 없어 주 예배 공간이 곧 식사 교체 공간으로도 활용되어야 하기에 충분한 테이블 수납 공간이 필요했고 부엌의 위치 또한 대예배실과의 동선의 길이와 다른 부속실과의 관계 속에서 배치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사랑하는 교회 : 카페 헤세드



# Cafe Heseed



교회를 이전하시게 된 계기와 카페운영의 필요성을 느끼신 배경을 소개해 주세요.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는 오래된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주의 엄청난 임대료 상승 요구로 더 이상 지속적인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되자,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현금을 해서 교회건물을 구입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교인 전체회의를 통해서 건물 구입을 결정하였습니다. 구입 결정 후, 교인 규모와 앞날을 고려한 크기의 공간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지상 층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지하층을 구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교인들의 귀한 현금으로 구입하게 되는 교회 공간을 일주일에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이전 전에 이미 어린이 영어 학원을 운영한 노하우는 있었지만, 지하층은 교육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구상을 하여야 했습니다. 동시에 교회 건물은 교인들만의 교제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이기적이라는 한국교회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도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근래 문화공간으로 떠오르는 있는 카페 운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는 교인들의 좋은 교제공간이 될 뿐 아니라 선교의 접점으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공정무역 유기농 커피점인 커피밀의 사례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커피밀 가맹점 가입을 고려하기도 하였지만, 우리의 상황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자는 생각으로 좁혀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 박덕주목사





Cafe Hessed

상가교회로는 인테리어에 과감한 투자를 하셨는데 계기와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또한 가장 어려웠던 부분과 가장 중점(노력)을 두신 것이 있다면?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우선 임대차 아니라 소유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창립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건물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투자를 해서라도,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것이 교인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한편 카페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보니, 지하층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인테리어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가 좋지 않다면 누가 지하층까지 내려와서 커피를 마시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교인이 운영하는 ISM이라는 훌륭한 디자인 업체와 그 디자인

을 그대로 구현해 낸 좋은 업체(SM 인테리어)의 노력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맡은 ISM은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교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지하층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을 스테디하며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디자인하였습니다. 지하층은 환기와 습기, 조명, 낮은 천장고, 그리고 이에 따른 심리적 협소함이 극복해야 할 점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ISM은 첫째, 공조 용량은 일반 오피스 공간보다 2~3배가 되게 하여 환기와 습기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둘째, 조명 문제는 전체적으로 밝은 조명을 사용함은 기본이었고,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한 '광 천장' (천장 전체가 빛을 발함)과 가장 깊은 벽들에 설치한 '라이팅 월' (벽면 전체가 빛을 발함)로 매우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협소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공간의 체적을 극대화하려고 애썼습니다. 기존의 공조 덕트와 스프링클러 파이프를 모두 철거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천

## 교회카페 교인들의 좋은 교제 공간 및 선교의 접점으로 활용 가능

장고를 낮추어 덕트와 파이프를 재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천장을 부분적으로 높게 하는 '우물천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물 어디에서 보아도 공간이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공간화하기 위하여 유리벽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중앙에 배치한 로비에서 접근하는 공간들의 유리벽을 통해 공간이 확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가 강조하는 관계의 투명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한편 디자인 시점부터 공간이 교회와 카페가 함께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즉, 주중에는 카페 매장, 북카페, 세미나실이 카페로 사용되지만, 주일에는 청소년부 예배실과 소그룹 모임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하층의 단점은 극복되고, 오히려 저렴하게 구입한 넓은 공간은 북카페와 세미나실이라는 부대시설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보통 4명 이상의 그룹이 여유 있게 커피를 마실 공간은 그다지 많지 않은 현실에 비해서 8명에서 10명까지도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미나실은 15~2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공간인데 이곳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 영어프로그램과 꽃꽂이 교실이 진행되기도 하고 영영 사원들의 미팅이나 지역주민들 자체 운영의 각종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되기도 합니다.

카페 첫 오픈이 되기까지 허가, 바리스타, 인테리어소품, 가구, 식·기자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준비하셨나요?

카페 운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전 준비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작년 4월 교회카페 운영 아카데미에 참석하기도 하고, 지역 카페의 커피교실을 통해서 기본적인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서적과 주변의 경험자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육과 조언을 바탕으로 '문화선교를 꿈꾸는 커뮤니티 센터 역할의 카페'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가구는 포이동의 가구점에서 구입하거나 공사 업체에게 주문 제작하였습니다. 소품은 직접 인테리어 가게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식·기자재는

COEX에서 있었던 서울카페쇼에 가서 많은 리서치를 하면서 정보를 입수한 후 발품을 팔아가면서 황학동에서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두는 커피교실 교육을 받았던 방배동의 카페 블레싱에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스타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의 이장원 전도사가 카페 운영이 교회차원의 중요한 사역임을 알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분이 카페 운영 구상부터 가구와 식·기자재 구입을 위해 수고해 주셨고 카페의 바리스타로서 직접 운영하시고 계시면서 오늘도 맛있는 커피를 뽑아내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계십니다.



차를 마시고 여유를 즐기는 기본적인 카페공간에서 더 나아가 모임이나 공연을 위한 배려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현재는 영어회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직 영어회화 강사인 한 여 집사의 자원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꽃꽂이 강의와 중국어 기초회화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론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강의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애프터를 하시더군요. 주일에는 청소년부 예배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주중에는 음악 공연을 위해서 스테이지를 만들고 악기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아직은 주변 회원의 밴드 동아리의 문의만 있을 뿐 본격적인 음악공연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콘서트 기획을 생각 중입니다. 북카페는 또한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색채

를 줄여나가는 교회카페운영 아카데미의 권유에 따라 기존 교회 도서실의 기독교 서적은 뒷쪽에 배치하고 앞쪽과 디스플레이용으로는 일반서적을 주로 비치하였습니다. 한편 지역주민이 좋은 서적을 기증하면 아메리카노 한잔을 드리는 서비스를 하면서 서적 보유를 늘리고 그것이 다시 지역주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카페에는 두 대의 컴퓨터가 있기에 일부러 이 장소를 이용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면서 자녀들은 컴퓨터로 자료를 구하는 모임입니다. 뜻밖에 다른 교회와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세미나실에서 구역모임이나 소그룹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지만 우리 교회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커피 리필 대금을 장애인재활단체에 기증하게 하니 고객들도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페운영을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교회카페 운영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을 위한 메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레 배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4시경 한 영업사원처럼 보이는 남자 손님이 들어 오셨습니다. 커피와 차는 그다지 원하지 않는데 그 외에는 마땅한 것이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차 한 잔 시켰습니다. 바리스타는 그분의 마음을 읽고 당장 그분을 위한 급속 메뉴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일명 '미숫가루 스무디'를 만들어 서비스로 드렸더니 놀라면서 흡족해 하며 드셨습니다. 그 후 그 영업사원은 저희 카페를 거의 정기적으로 오셔서 '미숫가루 스무디'와 함께 업무준비를 하고, 급기야는 팀 미팅의 장소로 세미나실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카페 운영의 매력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카페를 지역 커뮤니티 센터처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모임, 동아리 모임, 여행 사전답사 세미나, 타 교회 소그룹 모임, 생일잔치 등 각종 모임을 카페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묘한 매력입니다.





시작하신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카페를 통해 목회에 어떠한 도움을 받았나요?  
또한 카페 운영을 통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많은 교인들이 카페 운영에 지원하고 있기에 카페가 교회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구입, 샌드위치 만들기, 꽃장식, 화분관리, 설거지 등 많은 일들에 여러 교인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기에 나누는 이야기 거리도 많아지고 보람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영어 회화반을 통해 카페를 오기 시작하시던 한 분이 이곳이 교회임을 알게 되고,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수요예배 참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고, 강사인 여집사에게 고민을 나누게 되면서 교회 식구가 되었습니다. 카페 운영을 통한 간접선교를 통해 직접 전도 까지 바라던 저희의 기대에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카페운영을 준비하고, 고민하는 교회와 목회자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 교회 이전과 함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교회 카페를 준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대시설도 갖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작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주중에는 카페로, 주말에는 예배와 교제의 공간으로 충분히 겸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간 활용의 극대화 차원에서 카페운영을 적극 추천합니다. 한편, 카페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과의 많은 접촉점이 생기는 너무나 좋은 기회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역시 카페 운영의 성공은 기본적으로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정성스런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커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시대이기에 그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교인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되기 쉽습니다. 그 기본 위에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과 여러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afe Heseed